

‘여객기 참사’ 후폭풍에 멈춘 지역경제… 지원·회복 ‘과제’

참사 발생 10개월 후에도 60% “상권 침체” 사업체 운영자 절반 “이대로는 영업 곤란” 작년 피해지역 여행업체 282억 피해 추산 무안공항 재개항 지연… “피해 추가 파악”

12·29 여객기 참사 발생 뒤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도 광주·전남 지역 경제엔 사고 여파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7월을 목표로 하던 무안공항 재개항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추가 피해 현황 파악과 이를 통한 지원책 보완에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학회가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진행한 ‘12·29 사고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참사 피해지역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참사 발생 약 10개월 차였던 지난해 9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3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8%가 ‘사고 이후 지역 내 상권 분위기가 침체됐다’고 답했으며 소비 활동과 방문객이 줄었다고 체감하는 비율도 각각 53.8%, 58.8%에 달했다.

특히 사업체 운영자들 가운데 41.0%는 매출이 감소했으며 23.0%는 거래처와의

계약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도 47.5%로 높았다.

응답자의 60.4%는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느꼈으며 65.9%는 피해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회복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지역 방문객 대상 숙박 및 교통 등 할인 혜택 제공(84.8%)’이 꼽혔다. 이어 이미지 회복을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84.0%), 지역주민 대상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상품권 및 할인 쿠폰 제공(79.4%) 등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지역민들의 사늘한 체감 경기는 데이터로도 확인됐다. 연구진이 2023년~2024년 무안공항 출입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피해지역 여행업체 피해액은 2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025년 문화관광 분야 검색량 역시 전



국 평균이 전년 대비 8% 감소한 데 반해 무안 지역은 15% 급감해 사고의 타격을 여실히 보여줬다.

현재 정부는 피해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에 따라 피해 관광업계 지원 3건, 소상공인·주민 지원 3건, 문화·관광 기반 마련 6건 등 12개 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아직 사업계획 검토나 공고, 승인 등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무안공항 재개항이 미뤄지는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과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 지원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 피해 현황을 추가로 파악하고 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추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역업계 관계자·지자체 대상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업체 요구사항의 정당성과 타당성,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황 운영 중단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이번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 2분기 제조업 체감경기 ‘급락’

2분기 BSI 75… 유가·환율·물류비 ‘3중고’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이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비용 상승 압박으로 2분기 경기를 매우 어렵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가 지역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2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분기(89)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75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 소폭 반등했던 기대감이 한 분기 만에 다시 꺾인 모습이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매출액을 제외한 모든 경영 지표가 하락하며 기업들의 고충을 드러냈다.

이는 지난 1분기 소폭 반등했던 기대감이 한 분기 만에 꺾인 것으로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환율·물류비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며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다시 악화됐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수출 부담을 직접적으로 떠안은 중소 협력사들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환경별로는 매출액(86→90)이 일부 성수기 효과와 신규 수주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실제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79→75), 설비투자(93→89), 자금사정(71→64)은 일제히 하락했다.

이는 기업들이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금사정(64) 지수가 전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나 기업들의 유동성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상반기 경영에 영향을 미칠 주요 리스크 요인을 묻는 질문에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61.7%)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30.8%), 소비 회복 둔화(25.2%), 자금

부담 완화(21.5%) 순으로 나타나 비용상승과 더불어 외부 변수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상반기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계획대로 진행(53.3%)이 과반을 차지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축소·지연 응답도 41.1%에 달해 투자 위축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투자 축소·지연 사유로는 수요 등 시장 수요 약화(36.4%), 관세·전쟁 등 통상환경 변화(20.5%), 에너지·원자재 등 생산비용 상승(18.2%)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122)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기준치(100)를 밑돌며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자제품·통신, 철강·금속, 화학·고무·플라스틱 등 주요 업종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다.

전자제품·통신(81→50)은 IT 수요 둔화와 가전 소비 위축, 발주 지연 등이 겹치며 부진이 심화될 전망이다. 계절전 생산 확대와 일부 신규 사업 기대가 하락 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90→122)은 신차 효과와 생산 확대, 안정적 수출 물량을 바탕으로 유일하게 기준치를 상회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기계·장비(95→82)는 건설 경기 침체와 설비투자 축소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되나, 자동차 산업 호조에 따른 일부 장비 수요가 하락세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금속(67→20)과 화학·고무·플라스틱(88→0)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둔화가 겹치며 업황 악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음료(100→40)는 원가 상승과 소비 위축 영향으로 체감경기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86→150)이 완성차 중심의 생산 확대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호전 전망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90→67)은 원자재·물류비 상승과 내수 소비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악화 전망이 우세했다. 수출 규모별로는 수출기업(86→64), 내수기업(90→78)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내수 소비 위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 채화석 상근부회장은 “자동차 수출 호조라는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중동 분쟁으로 인한 물류비 급등이 기업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면서 “내수 진작 정책과 더불어 긴급 경영안정자금 확대, 물류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영일 기자

전라남도는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26 관광기업 예비창업자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2026년 1월 현재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전남 거주자 또는 전입 예정자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전남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해야 하며, 협약 기간 중 전남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모집 분야는 ▲체험형 콘텐츠 및 테마 관광, 가이드 서비스 등 서비스·콘텐츠 ▲

전남도, 관광기업 예비창업자 모집

24일까지 체험형 콘텐츠 등 4개 분야 30명 이메일 접수

스마트 관광, 예약 플랫폼, 모바일리티 등 기술 융합 ▲테마 숙박, 로컬 라운지 등 시설·인프라 ▲디지털 및 밀키트 등 관광 기념품·미식 분야 등이다.

전남도는 30명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창업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우수 창업자를 선정해 최대 2천만 원의 창업 실행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실전형 아카데미를 통해 사업 구체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관광 창업 아카데미와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4월 24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jeonnam.go.kr)와 전남관광재단(jnto.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가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환율 상승으로 농자재 원료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이 이어짐에 따라 농자재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에 나선 결과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돼 사재기 자제를 적극 당부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월 28일 중동 상황 이후 4월 2일 기준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유종별로 16.9~27.4% 상승했으며, 농업용 필름, 무기질 비료 원료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3월 말 현재 농자재 공급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발작물 재배용 멀칭 필름 등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

전남도, 농자재 수급 상황 ‘안정’… 사재기 자제 당부

농업용 필름·무기질 비료 원료 등 공급 긴급 점검 결과

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4·5일 장성 황룡농협 농자재센터와 국내 최대 비료 생산 시설인 여수 남해화학을 방문해 면세유와 농업용 필름, 무기질 비료 원료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3월 말 현재 농자재 공급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발작물 재배용 멀칭 필름 등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106~117.1% 공급되고, 무기질 비료도 54.5% 초과 공급돼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 우려로 농업용 필름과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을 예상한 농가의 선구매(가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다.

농협중앙회에서도 가수요 증가에 대응

해 4월부터 지역농협 발주 물량을 전년도 월별 실수요 범위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남해화학은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료 원료 수입선을 브루나이와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하고, 7월까지 요소 및 복합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중동 상황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인상의 50% 국비 지원 ▲무기질 비료 가격안정 지원 99억 원 ▲나프타의 국내 생산 및 수입 물량 일부를 농업용 필름 원료로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우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